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8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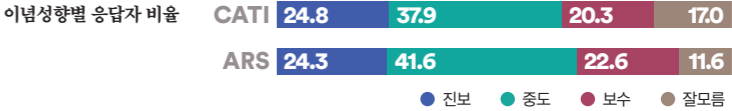
제53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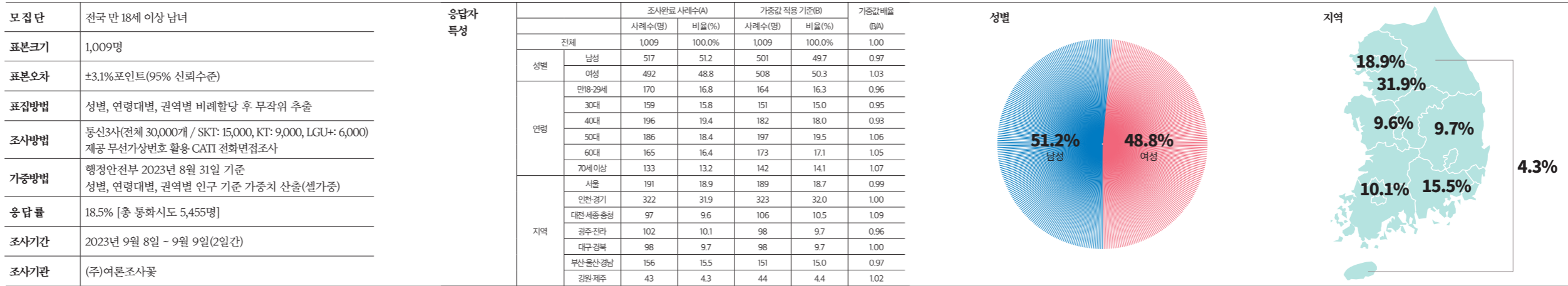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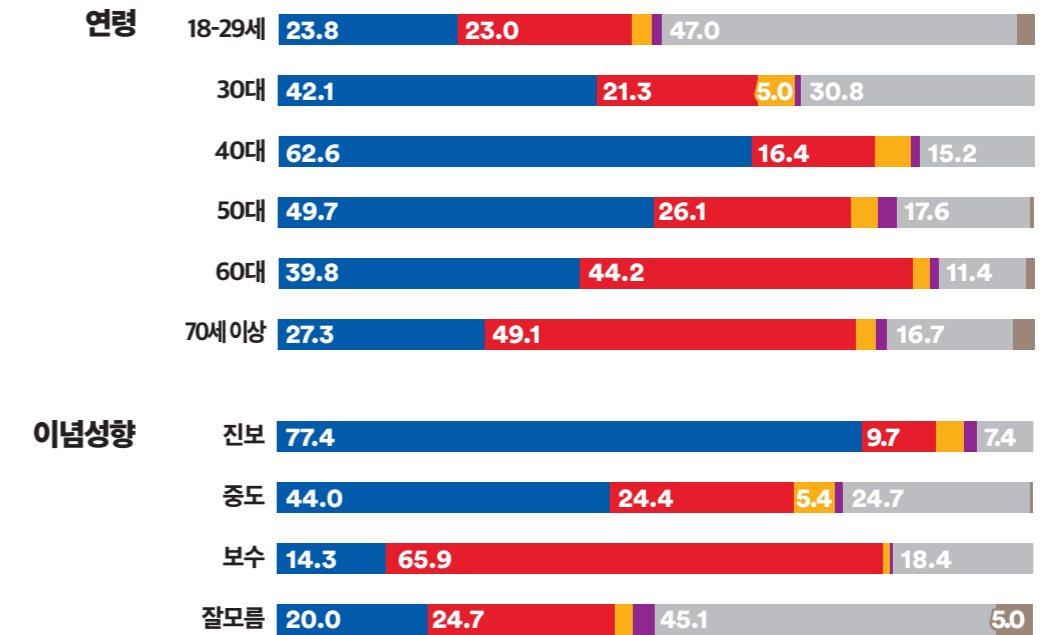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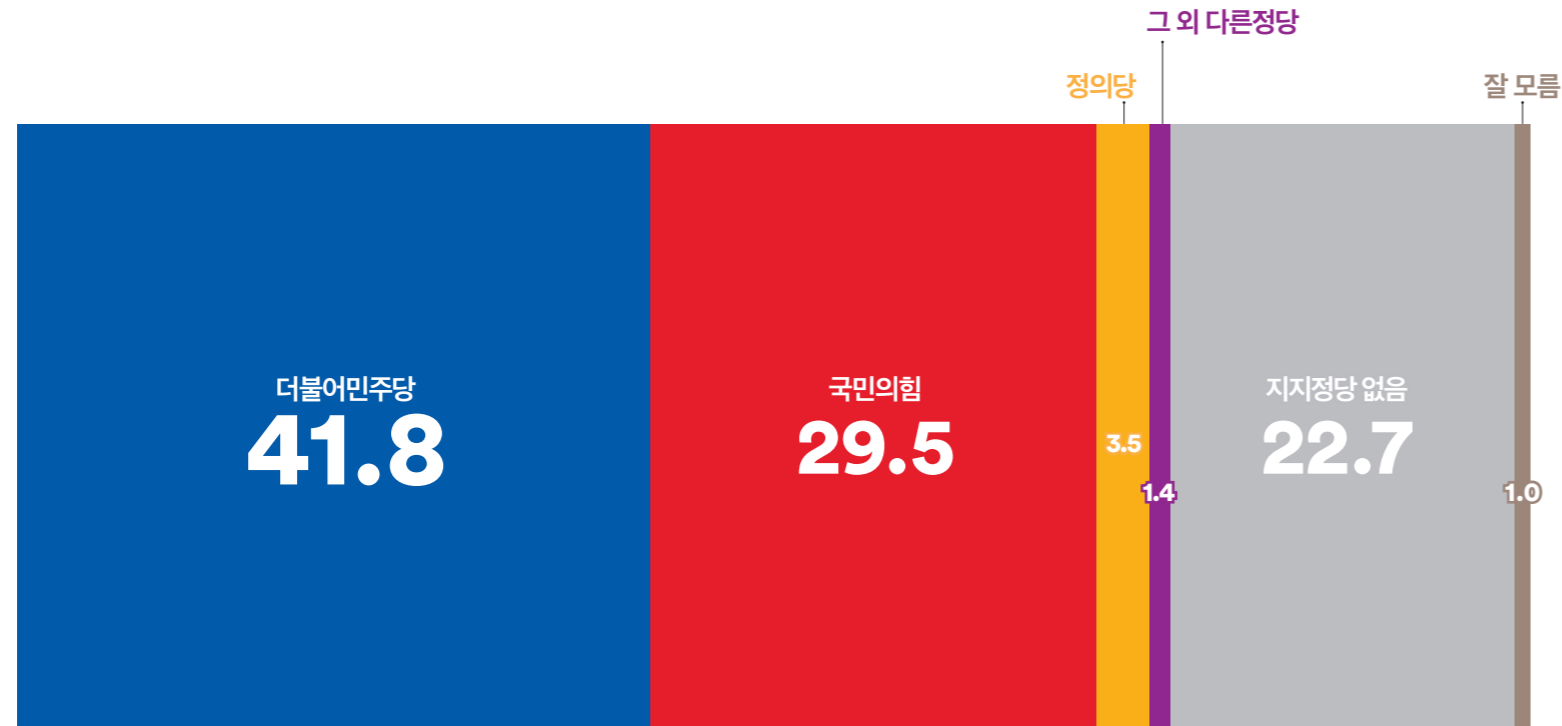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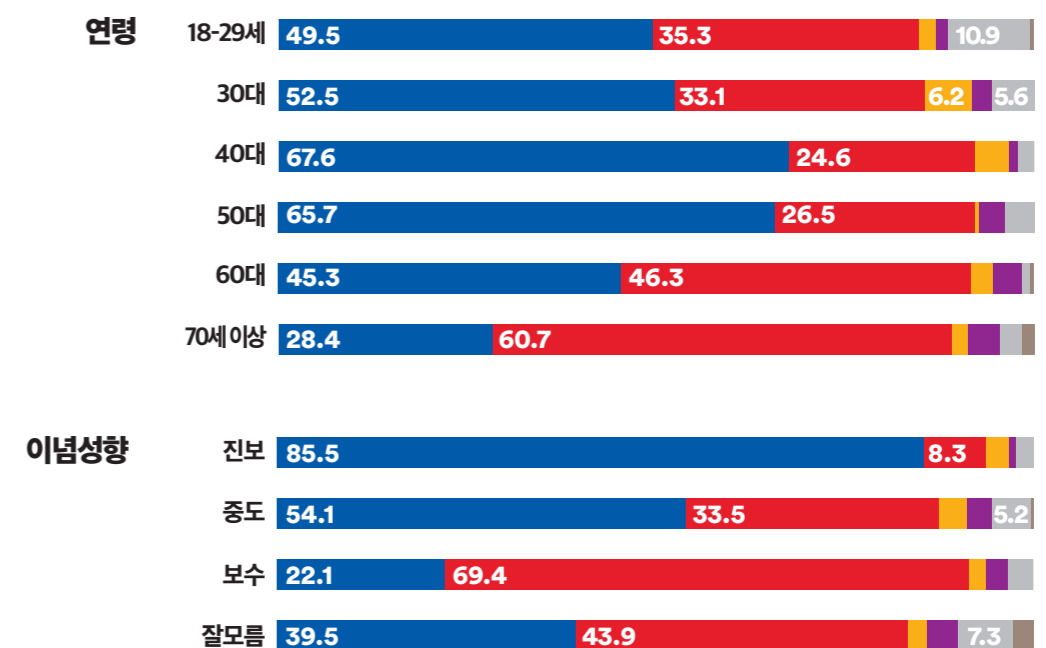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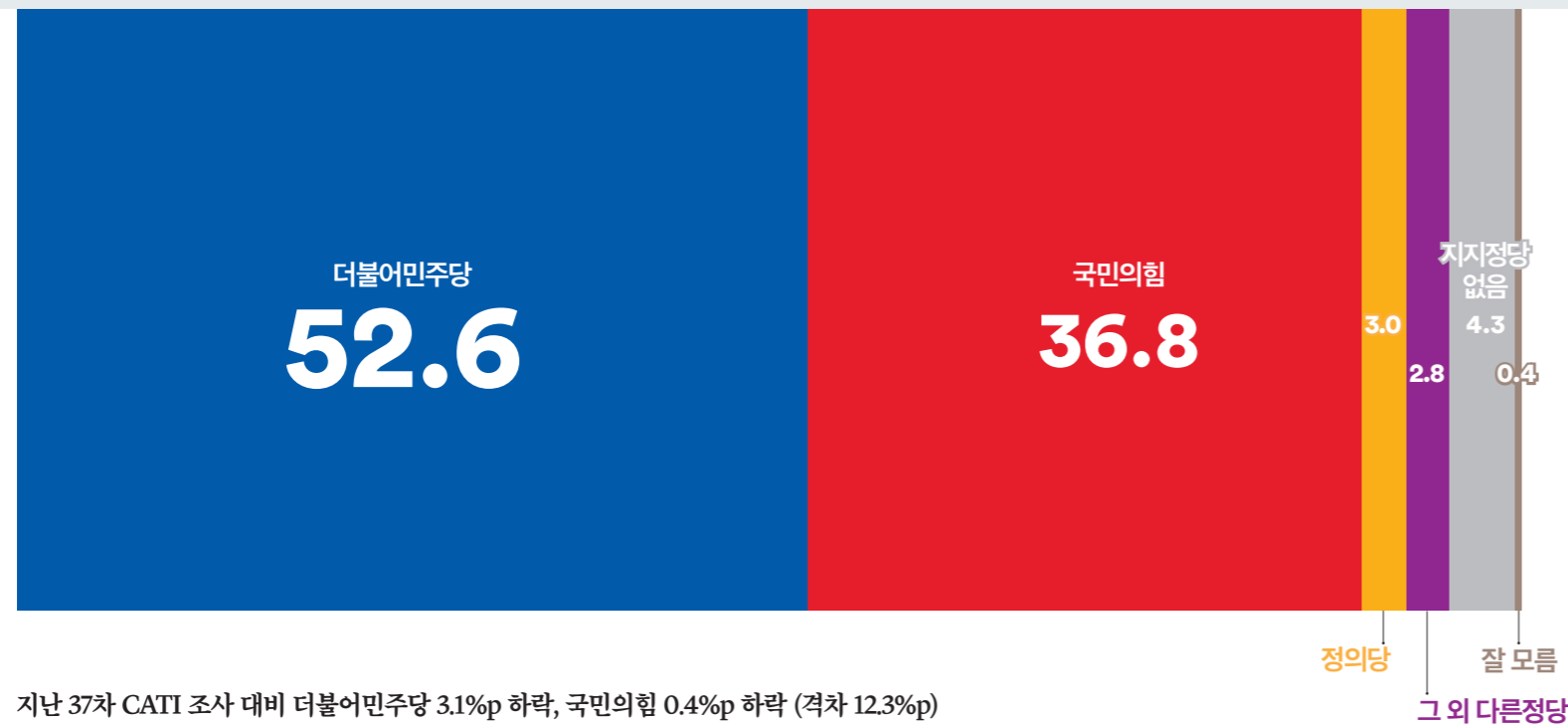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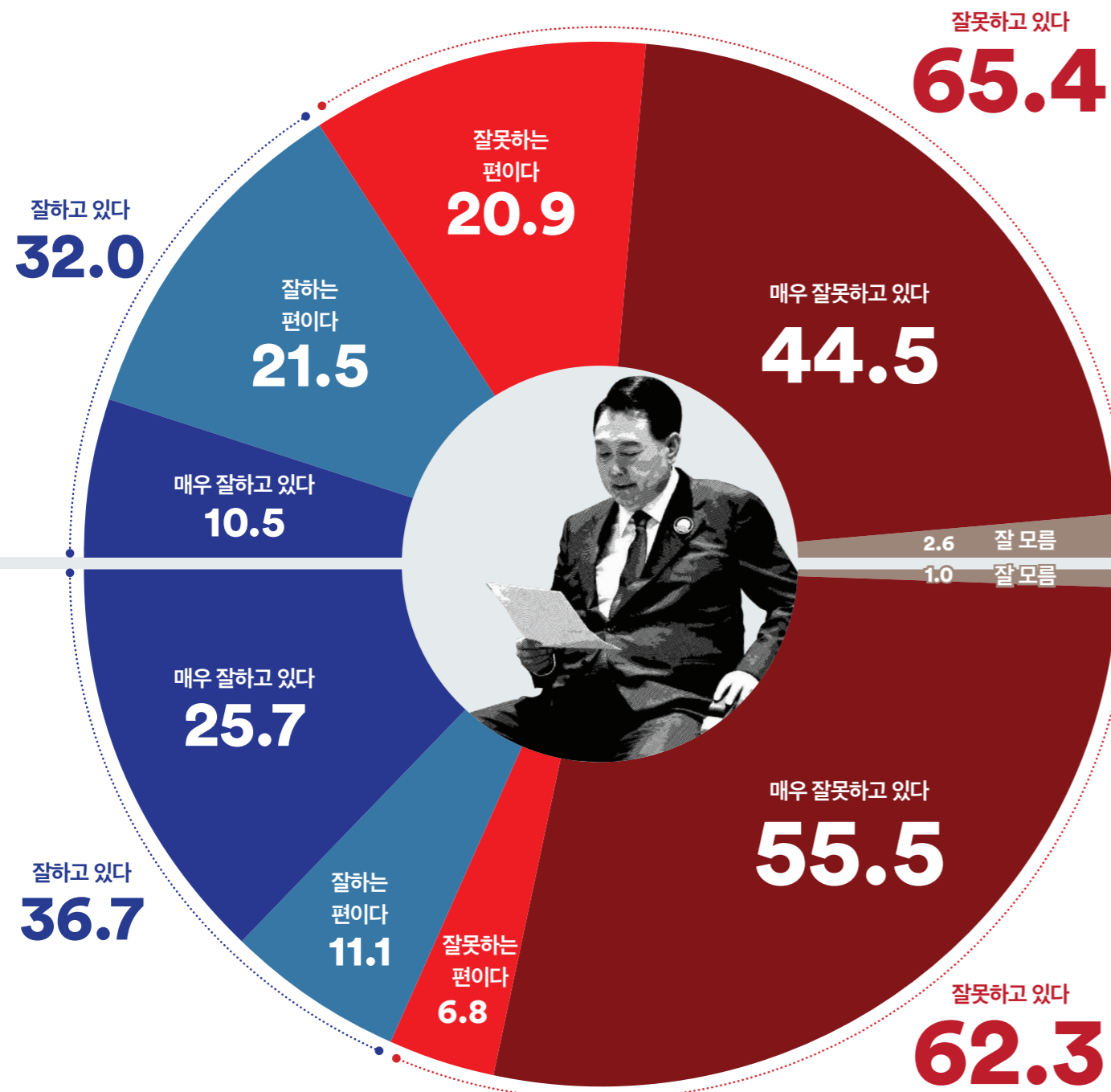


지난 37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3.1%p 하락, 국민의힘 0.4%p 하락 (격차 12.3%p)
 지난 52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5%p 하락, 국민의힘 2.1%p 상승 (격차 15.8%p)
 30-50대 연령층은 더불어민주당, 70세 이상 응답층은 국민의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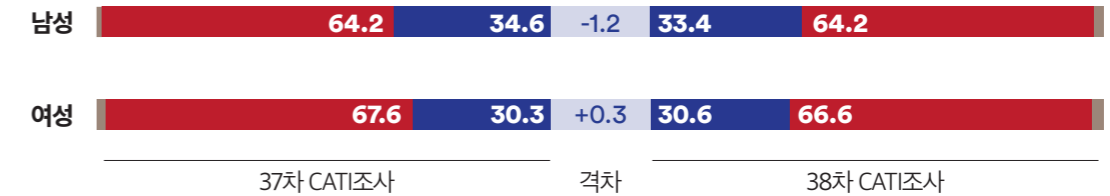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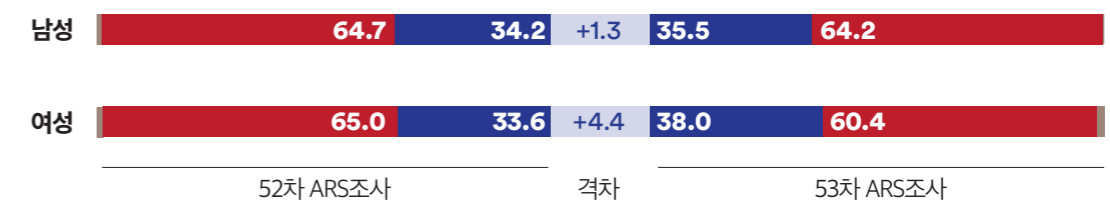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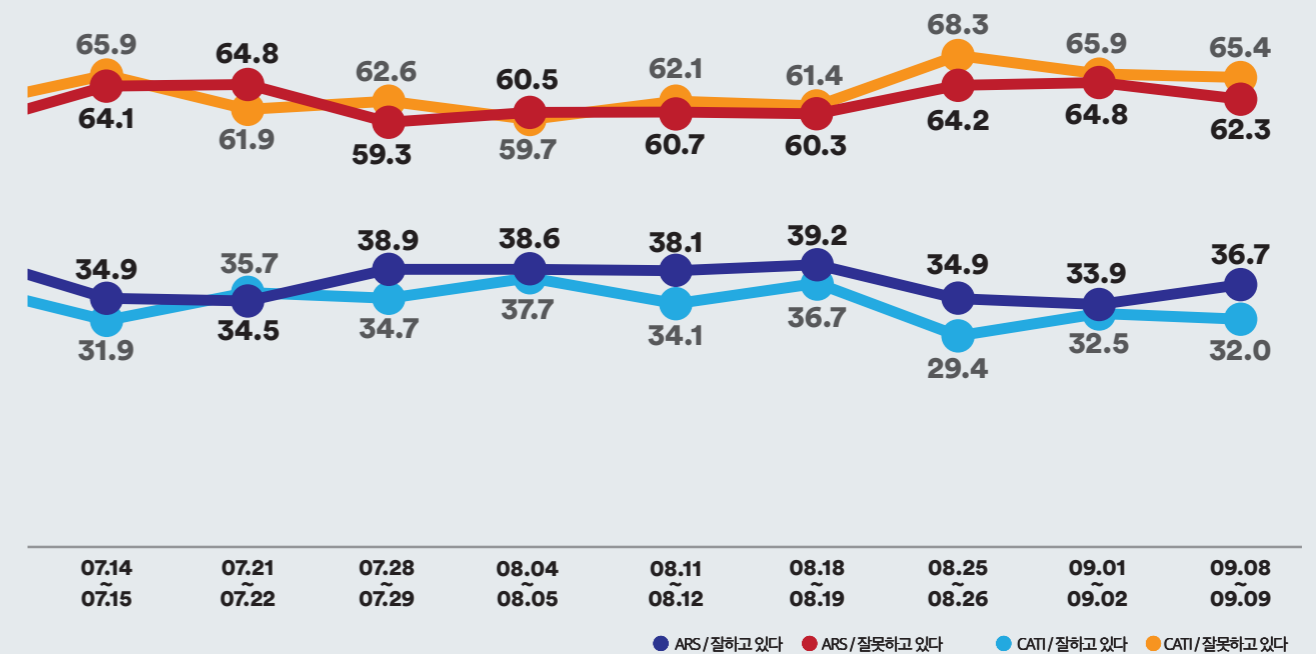
CATI



지난 37차 CATI 조사 대비 '긍정' 평가 0.5%p 하락, '부정' 평가 0.5%p 하락 (격차 33.4%p)
 지난 52차 ARS 조사 대비 '긍정' 평가 2.8%p 상승, '부정' 평가 2.5%p 하락 (격차 25.6%p)
 두 조사 모두 5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부정' 평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긍정' 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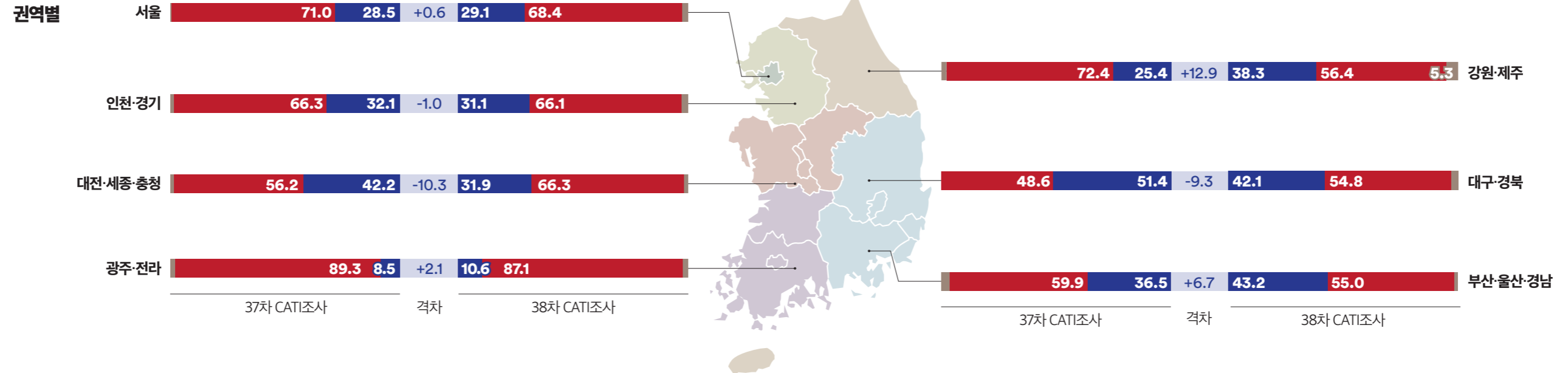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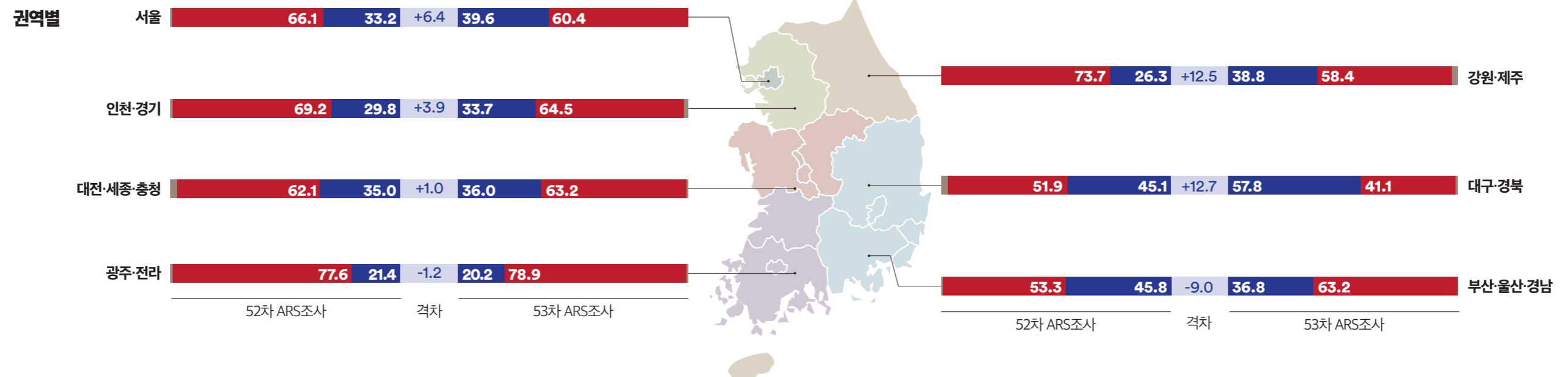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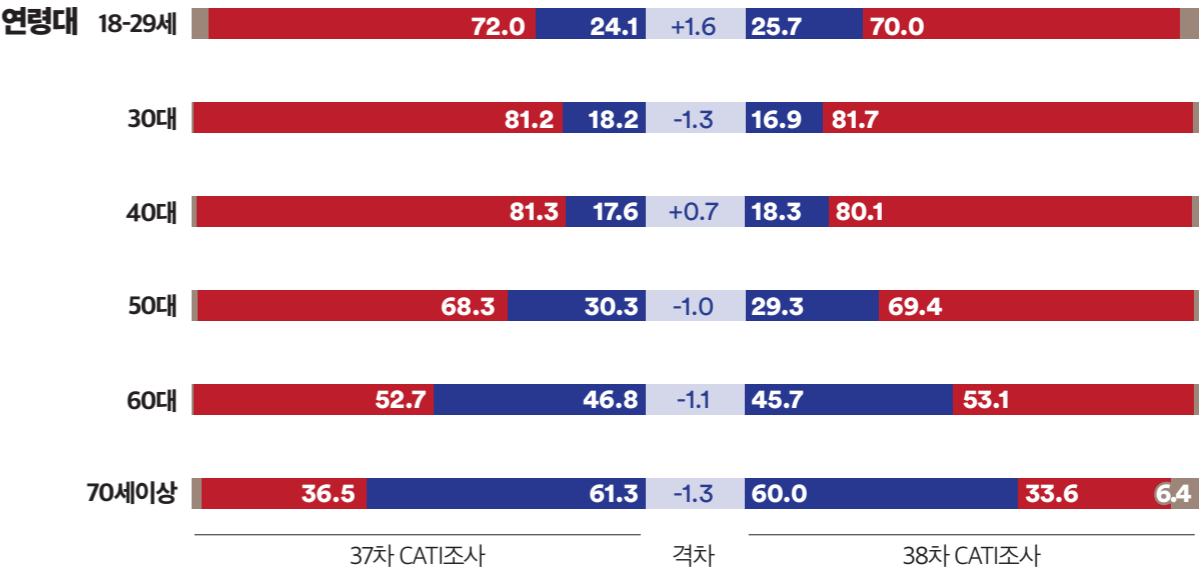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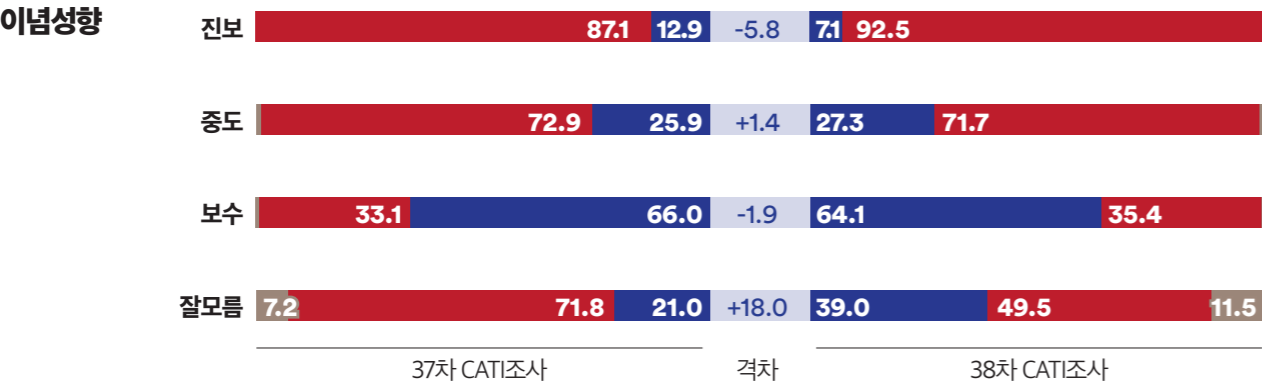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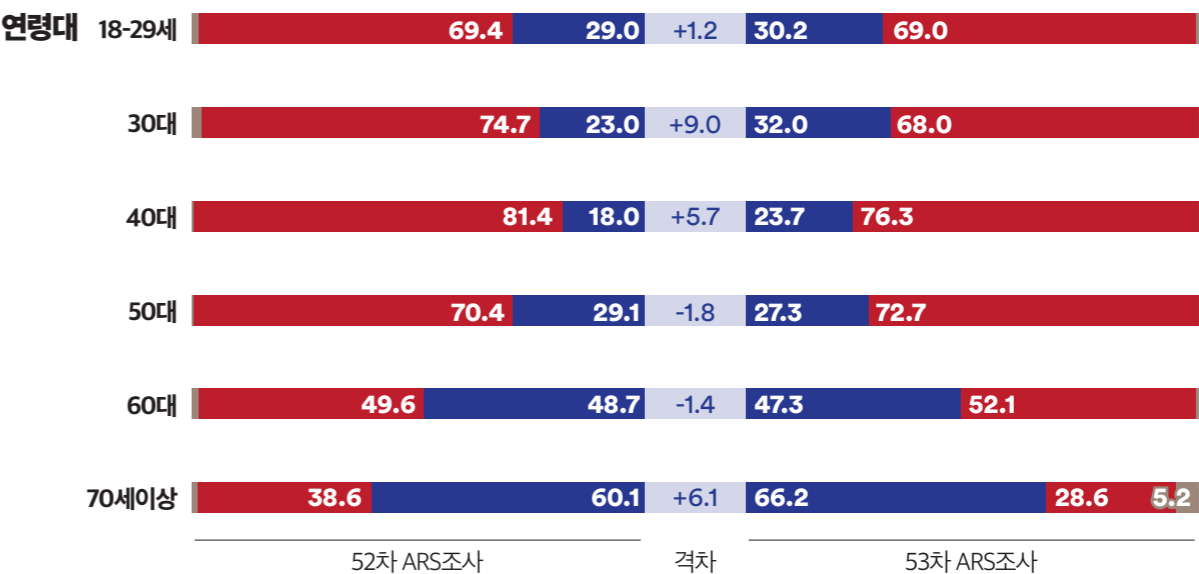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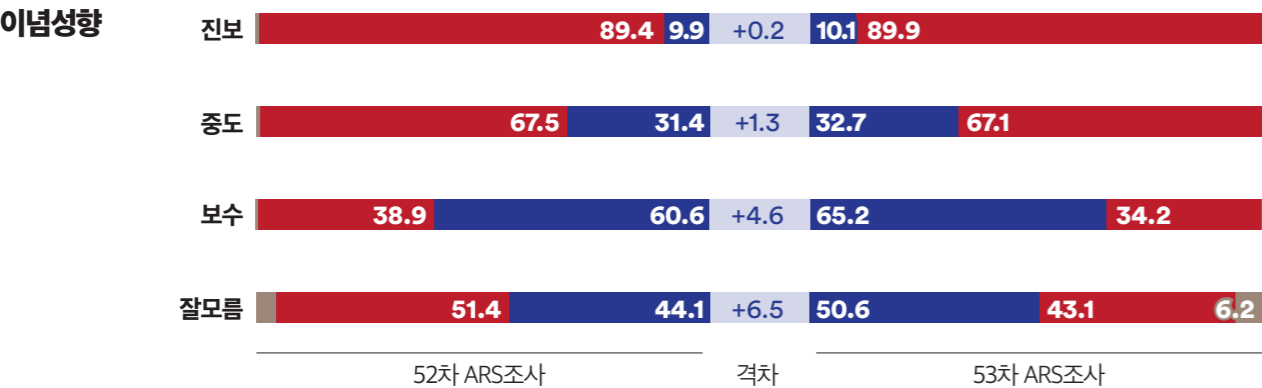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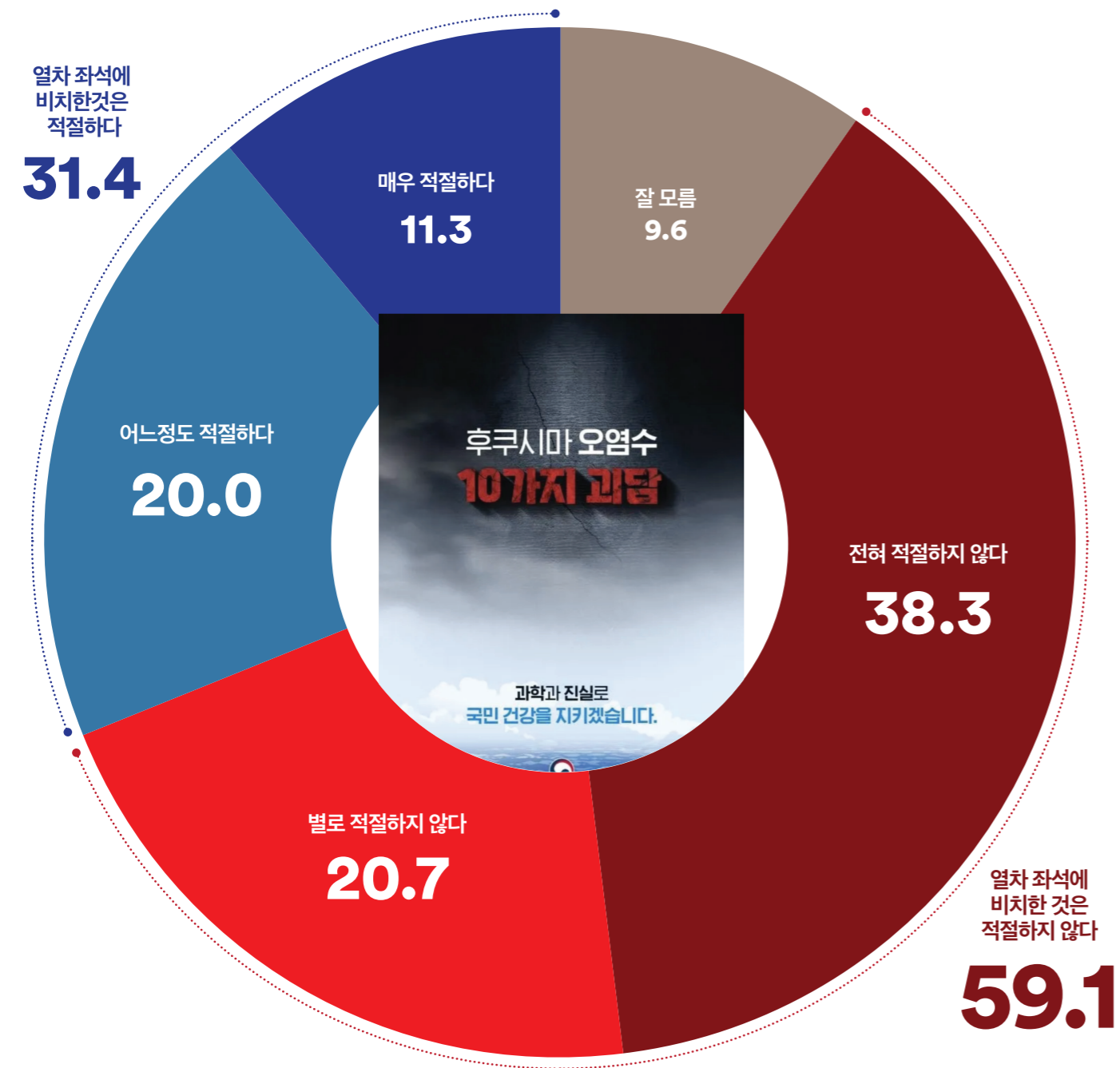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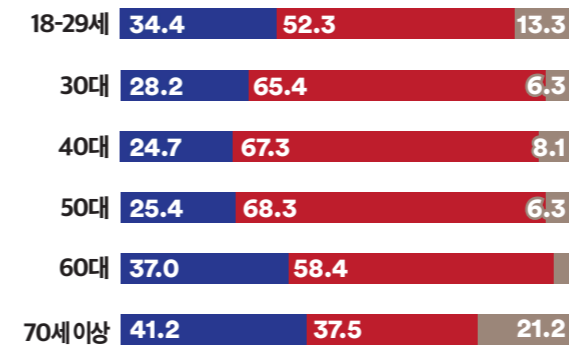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지난 1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를 KTX와 SRT 열차 좌석에 비치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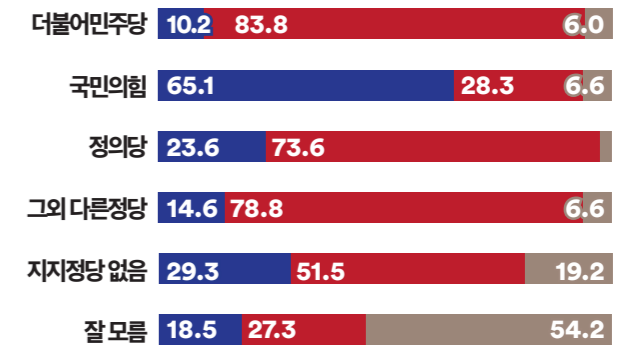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는 ‘문체부가 KTX 등 열차 좌석에 오염수 옹호 책자를 비치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모든 권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7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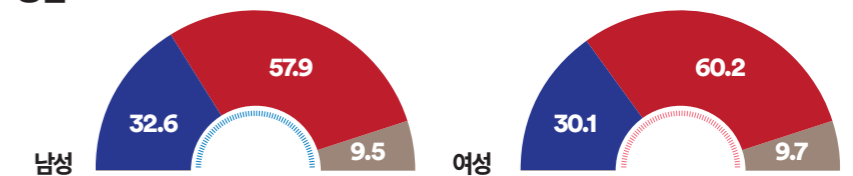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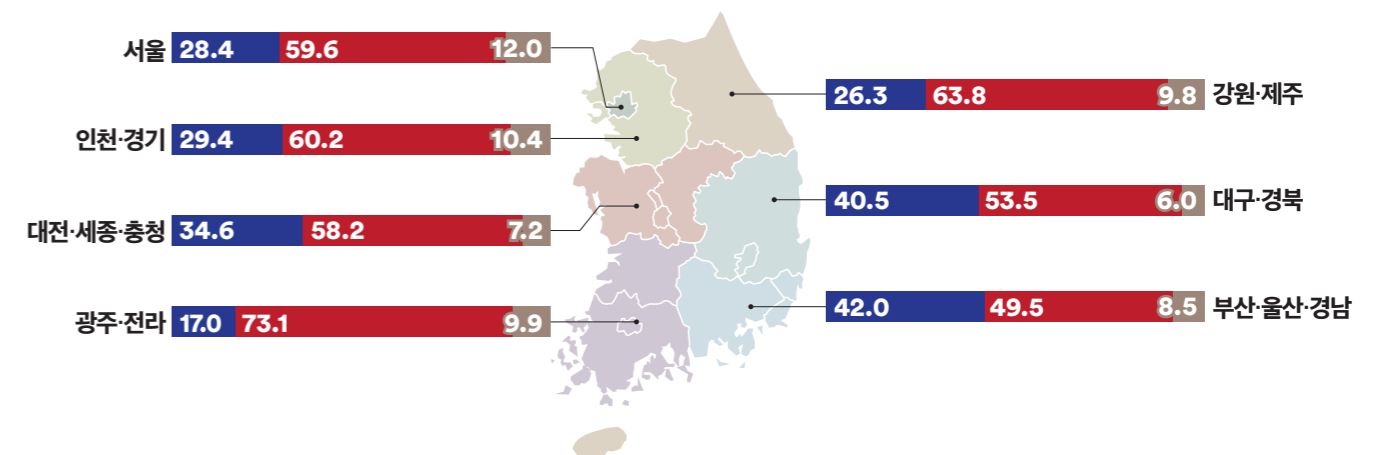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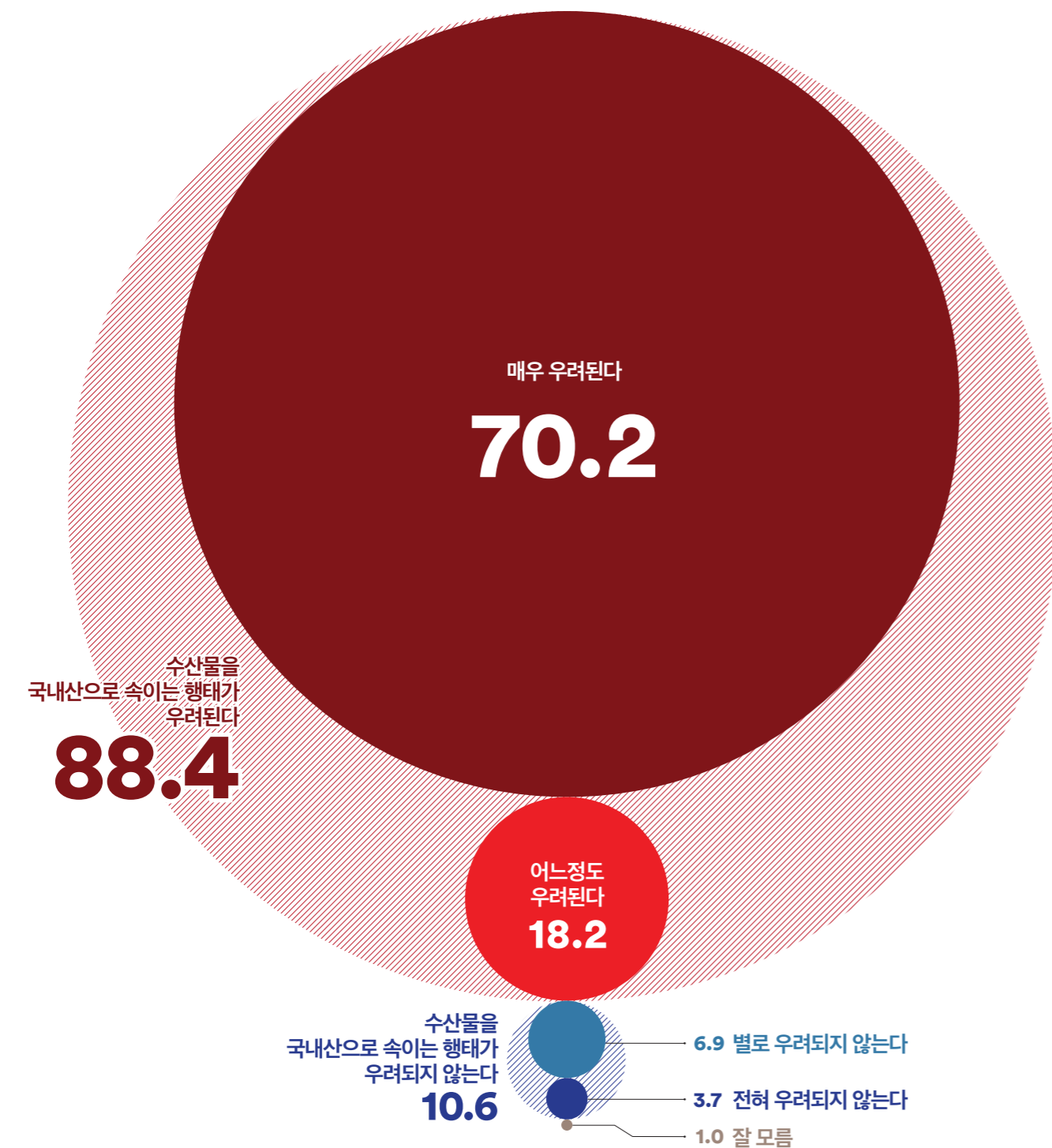
권역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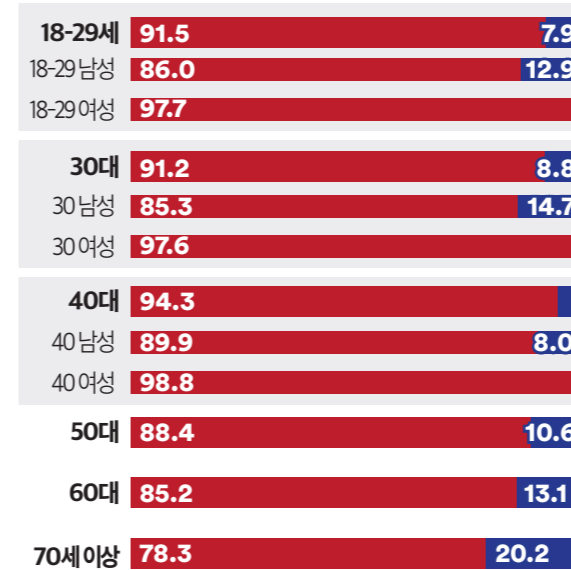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

Q. 최근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소 9곳이 적발됐는데요,
향후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태에 대해 얼마나 우려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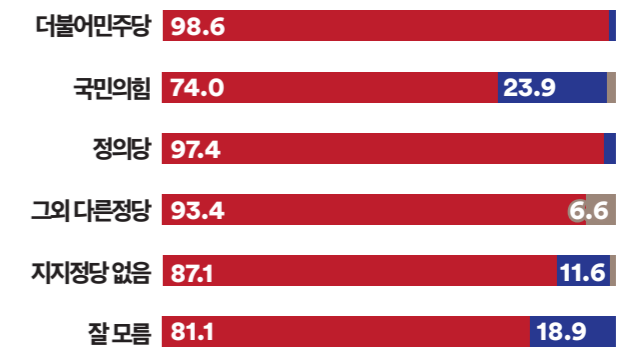


10명 중 9명 정도는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태가 우려된다'고 응답, '매우 우려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7명 이상
세부 지표인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우려된다'는 응답이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50%p가 넘는 격차로 '우려된다'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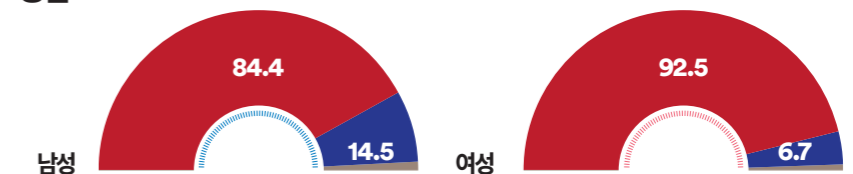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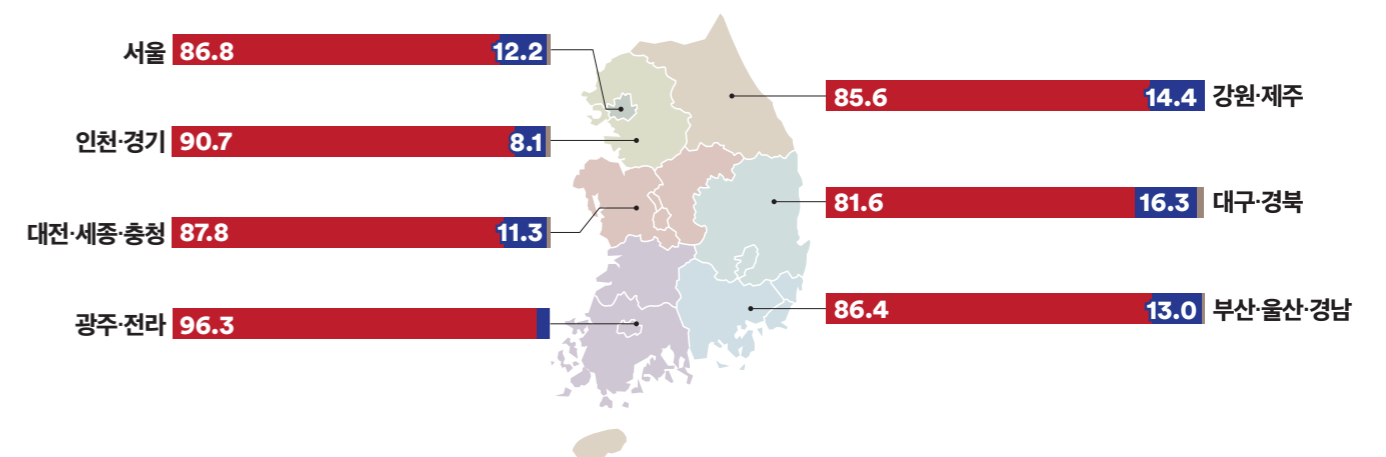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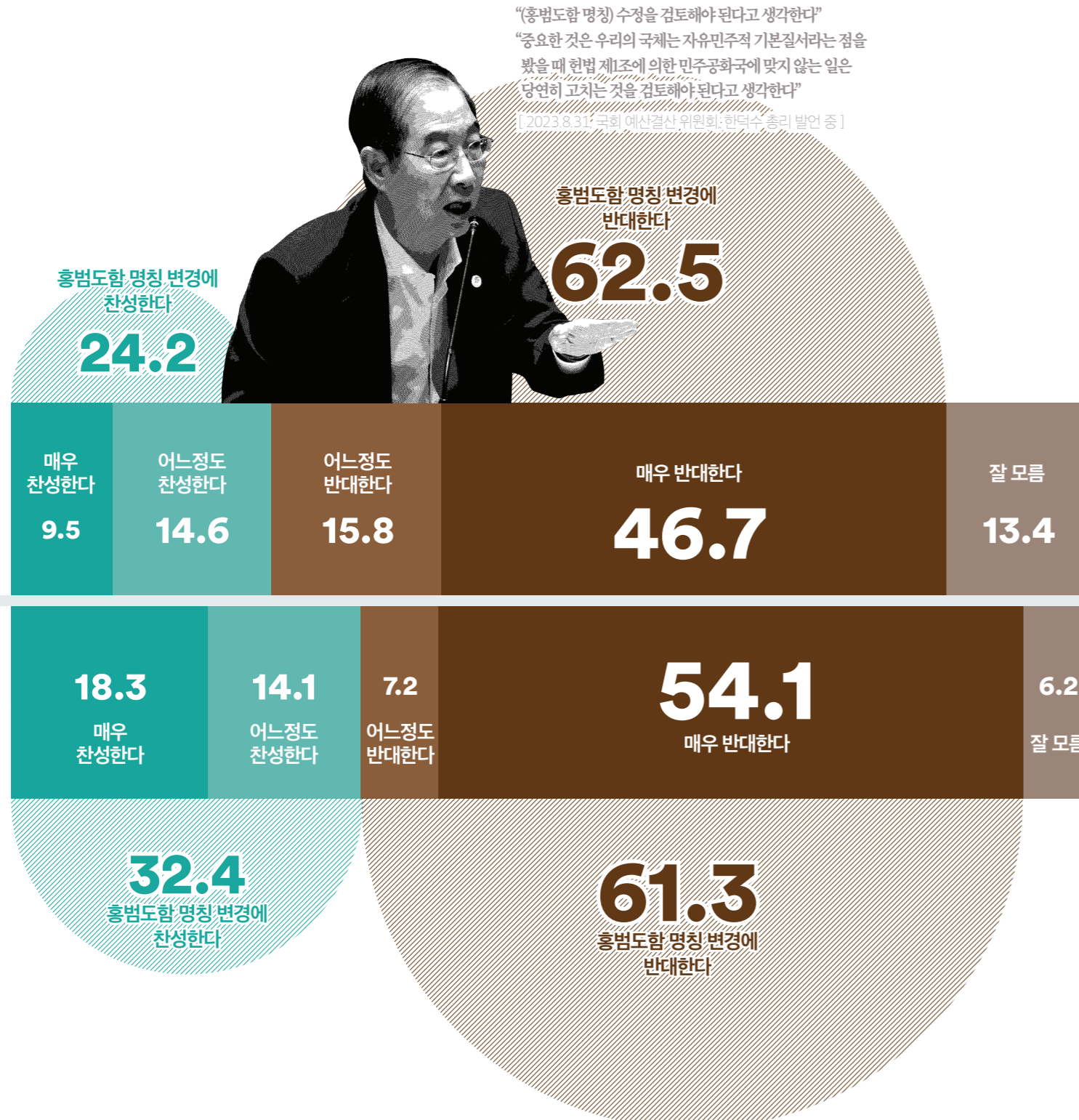
권역



우려된다 우려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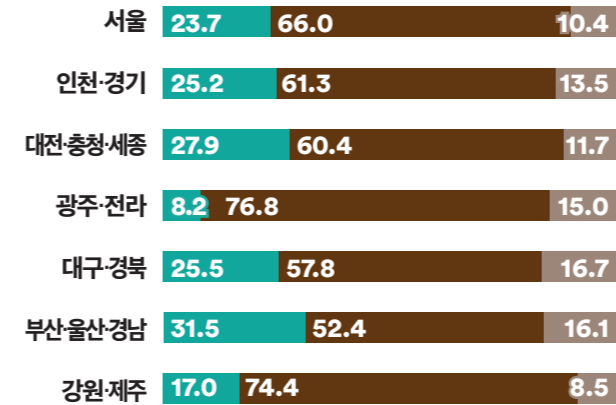
Q.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더하여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시사했습니다.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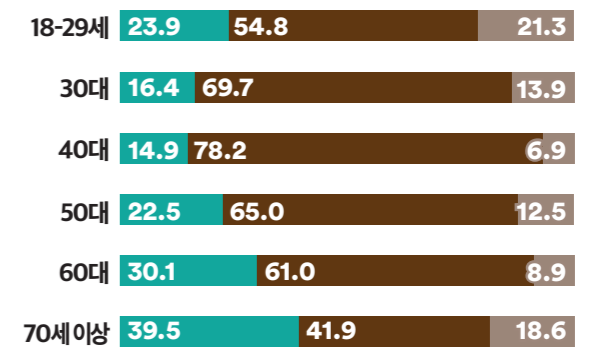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부가 홍범도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응답자 절반은 '매우 반대'한다고 응답
 ARS 조사의 TK권을 제외하면, 두 조사 모두 '반대' 응답이 앞섬
 50대 이하 응답층,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는 '반대'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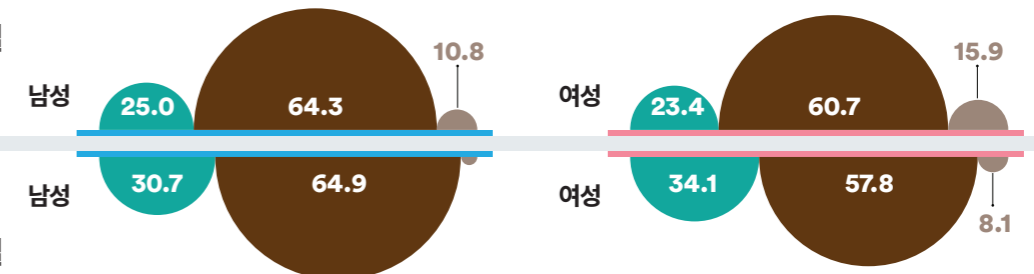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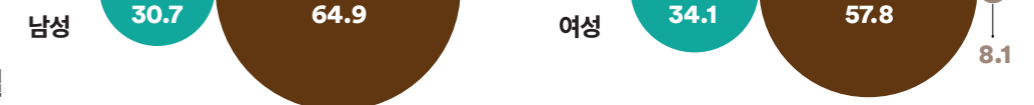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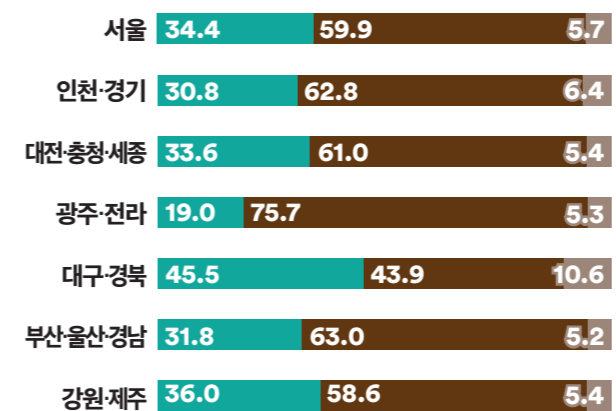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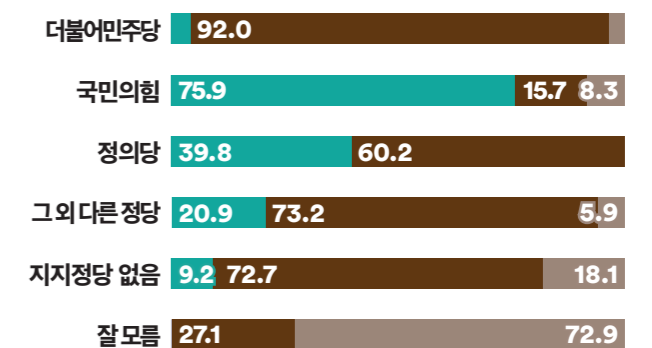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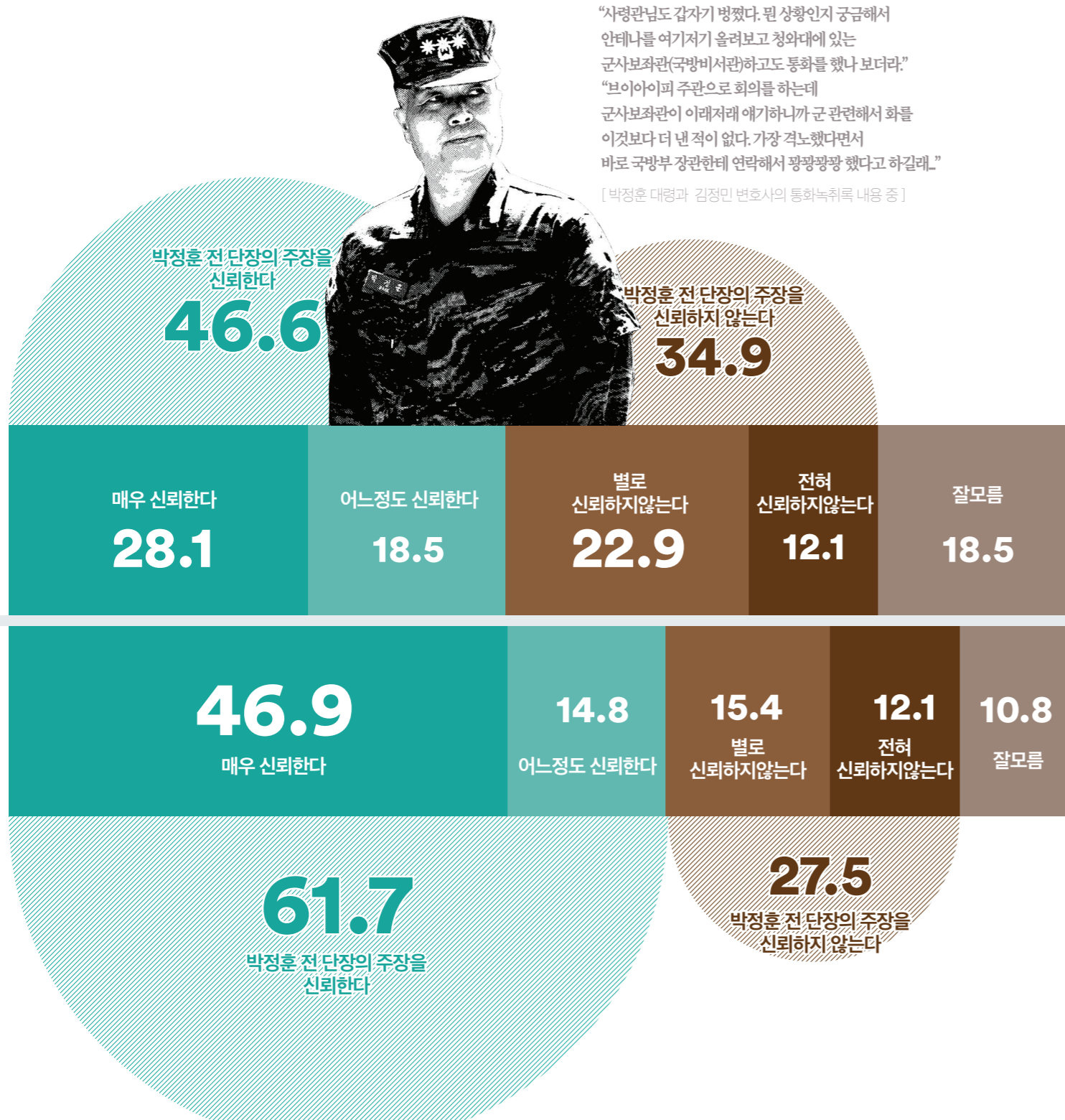


찬성한다 반대한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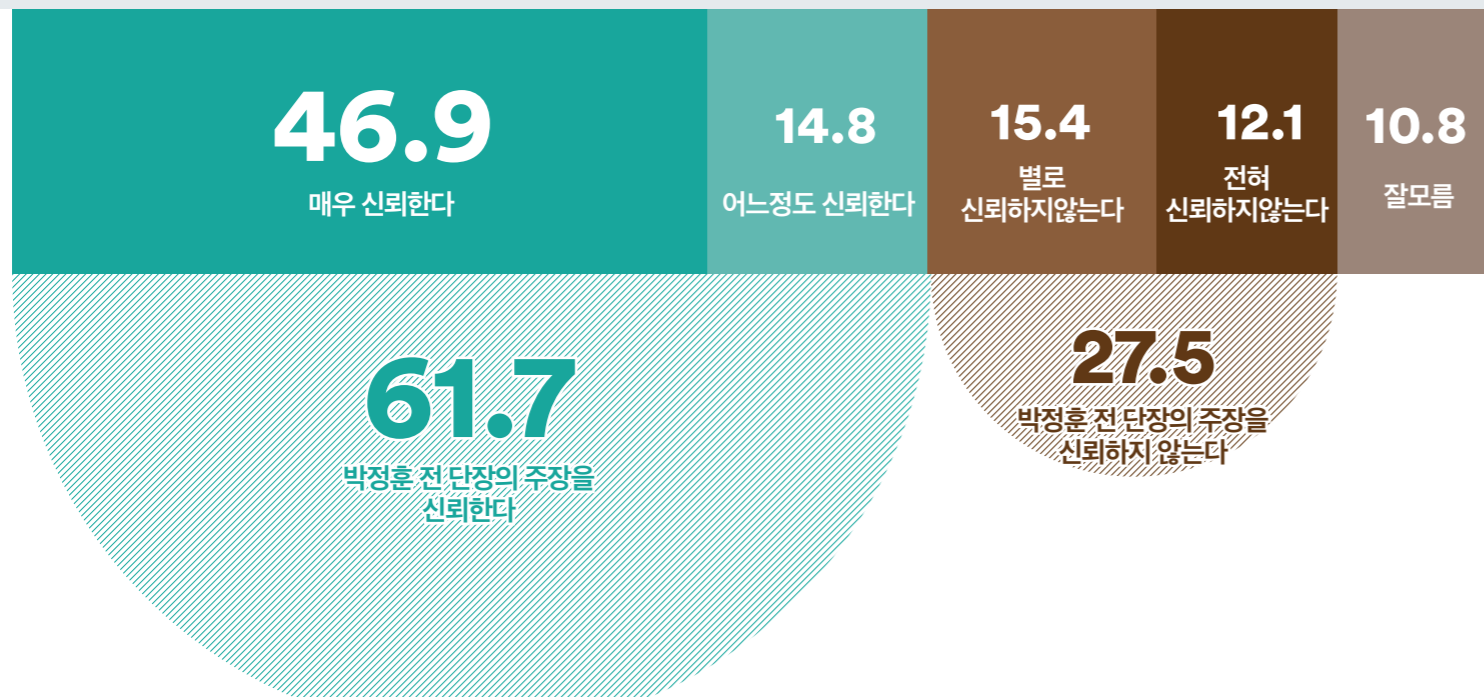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주장 신뢰도

Q.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고^췌 채수근 상병 수사가 뒤집혔다고 주장하는데요, 박 전 단장의 주장에 대해 얼마나 신뢰가 가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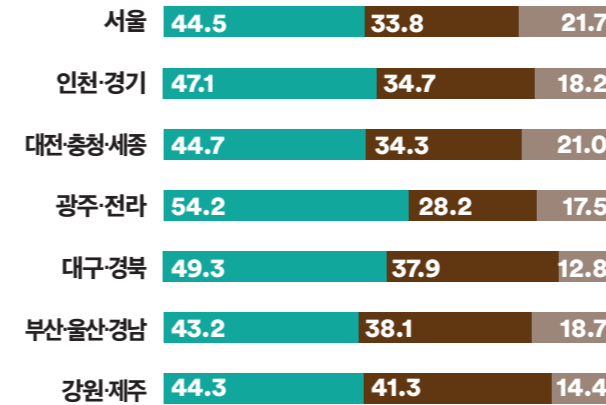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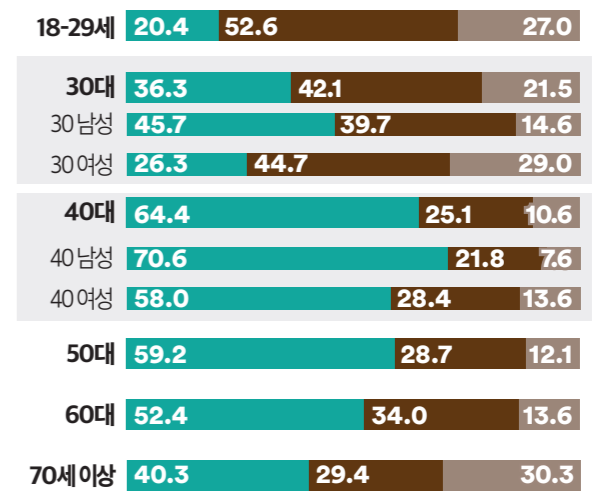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박 전 단장 주장을 ‘신뢰한다’는 응답 우세. 모든 권역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앞섬
상대적으로 더 편한 응답이 가능한 ARS에서 ‘신뢰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40~60대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우세했으나, 3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응답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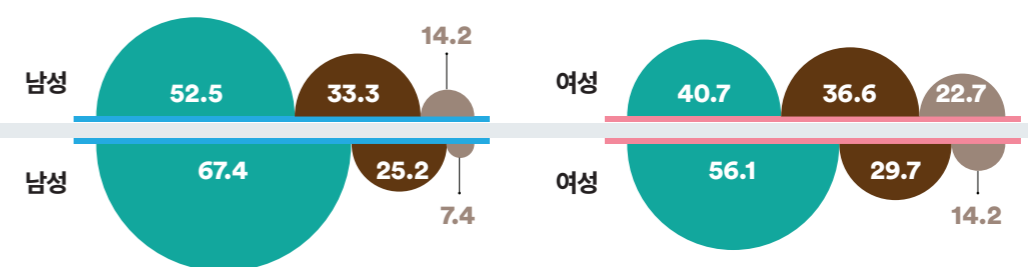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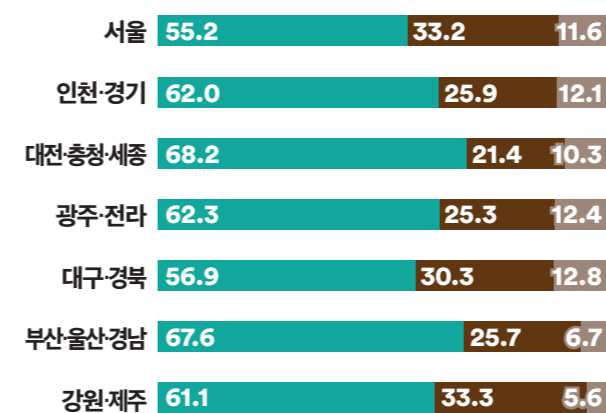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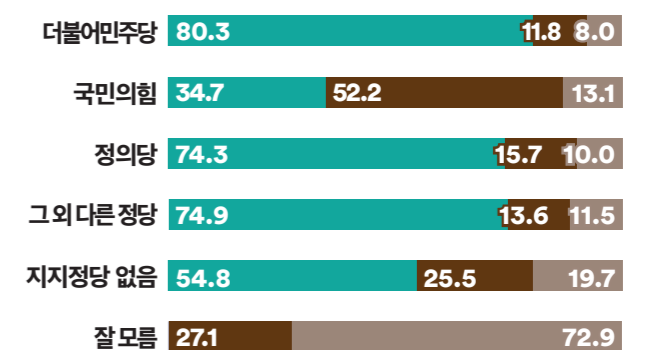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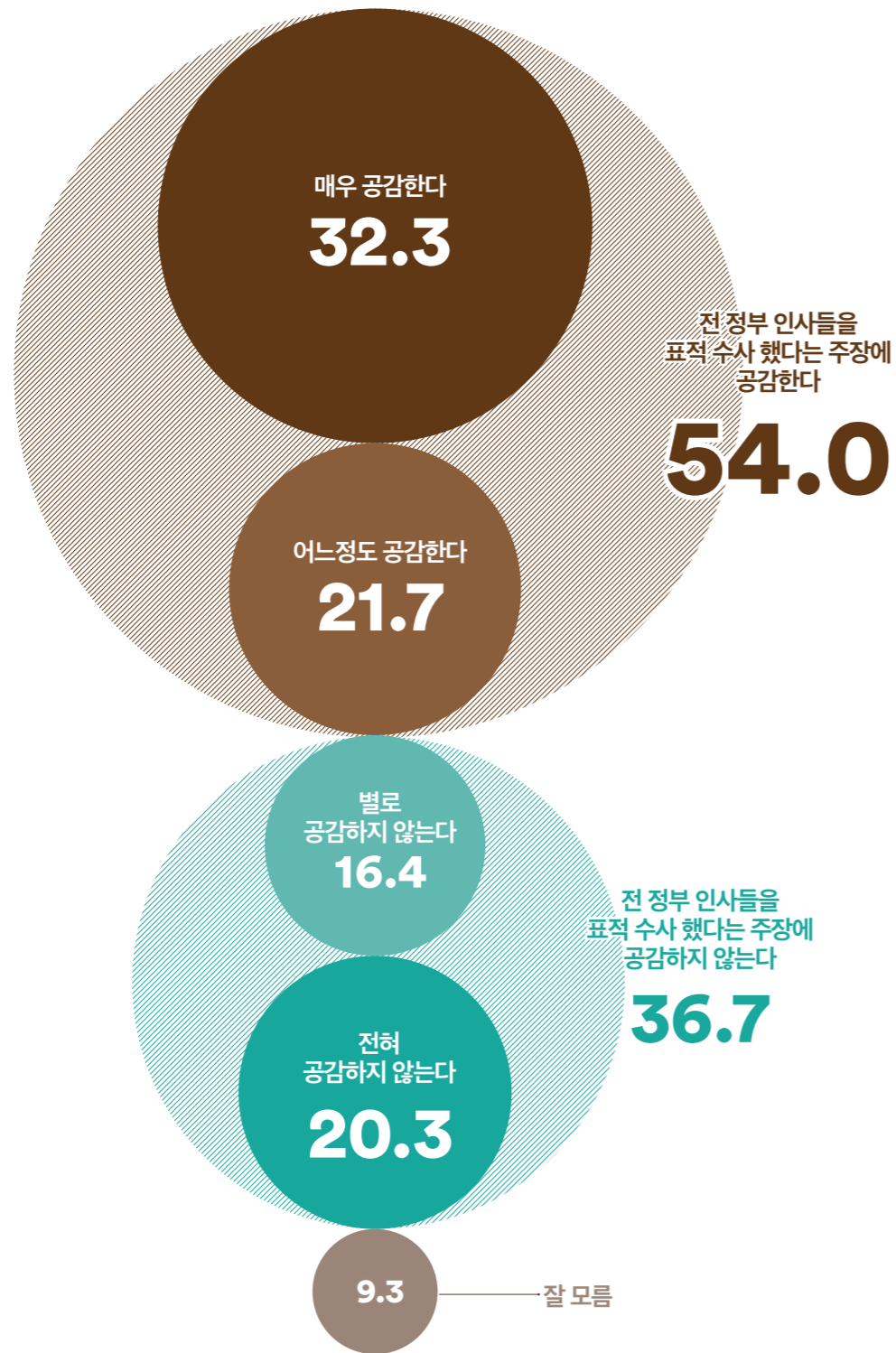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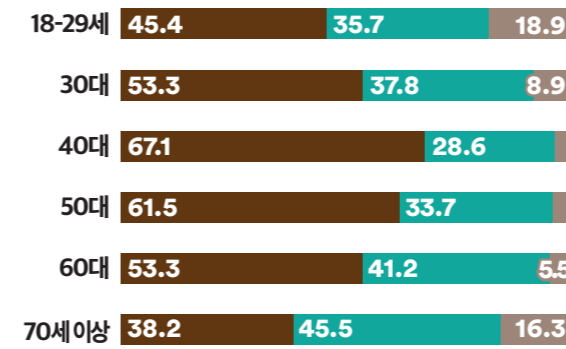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Q.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감사원을 동원해, 전 정부 인사들을 표적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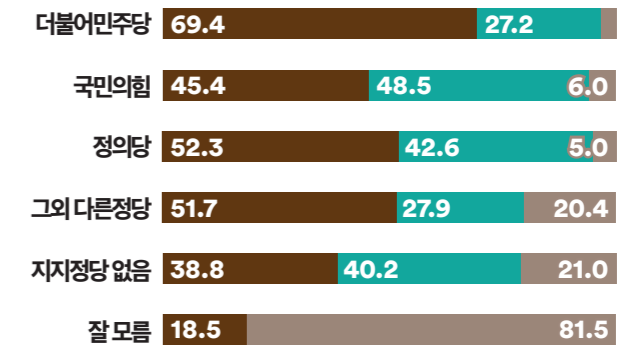


응답자 절반은 '전 정부 인사들을 표적 수사 했다는 주장에 공감'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앞섬
국민의힘 지지층은 '공감' 45.4% '비공감' 48.5%로 의견 갈리고, 보수층은 '공감' 48.2% '비공감' 47.6%로 초반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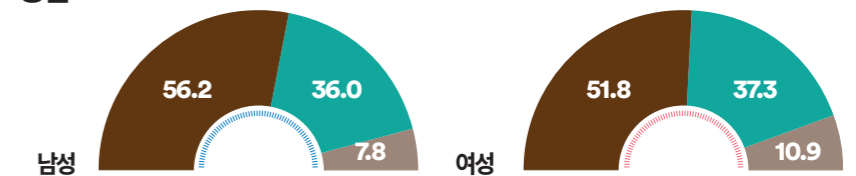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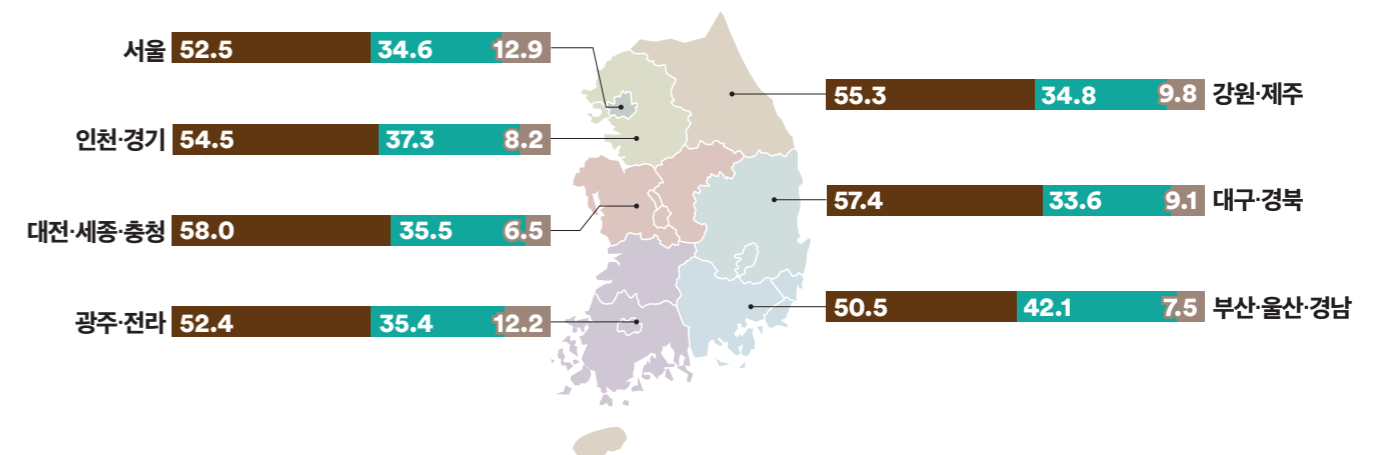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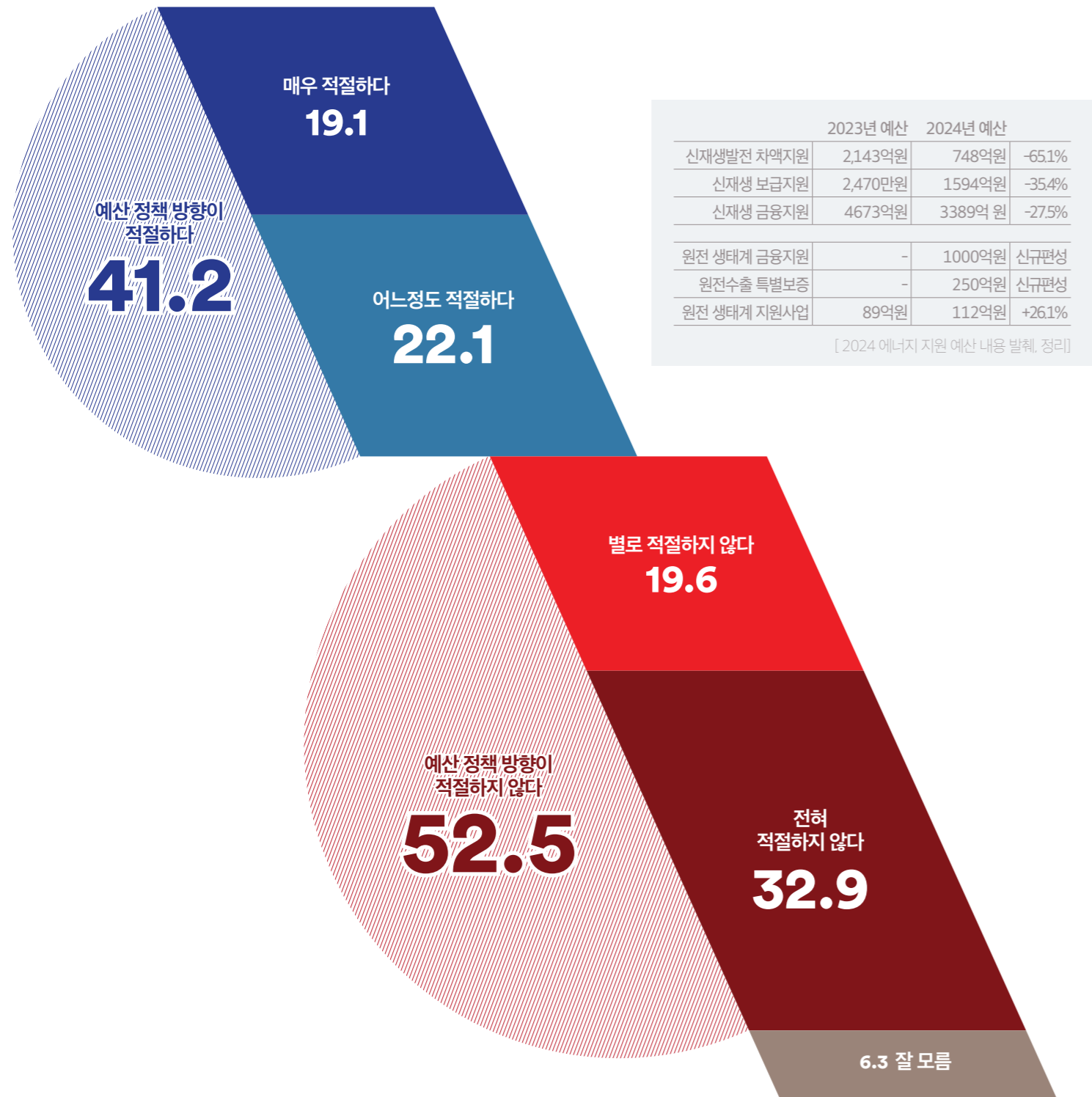
권역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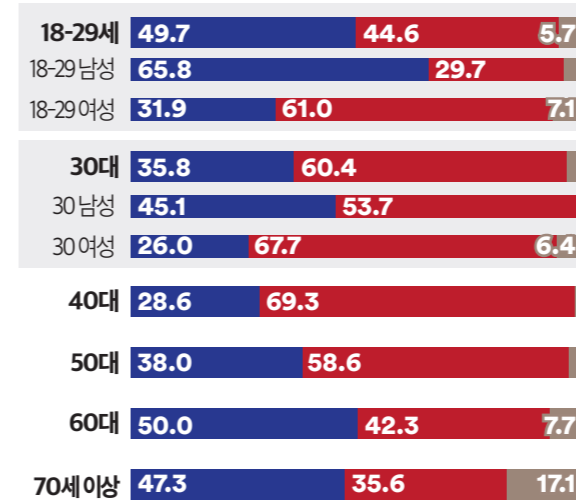
정부의 내년 예산 정책 방향 적절성

Q.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삭감하고, 원자력 발전 관련 예산은 증액했는데요, 이러한 예산 정책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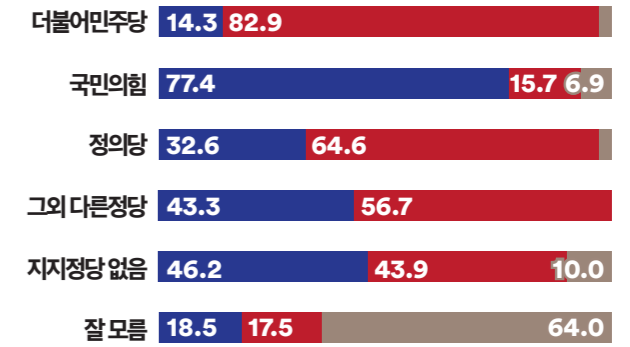


10명 중 5명 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
30-50대 응답층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 우세, 특히 30·40여성층이 타 계층 대비 높은 응답을 보임
'적절하다'는 응답은 20·60대·70세 이상 남성층(각각 65.8%, 56.0%, 62.9%)에서 타 계층 대비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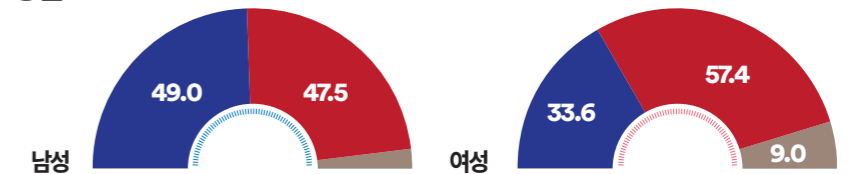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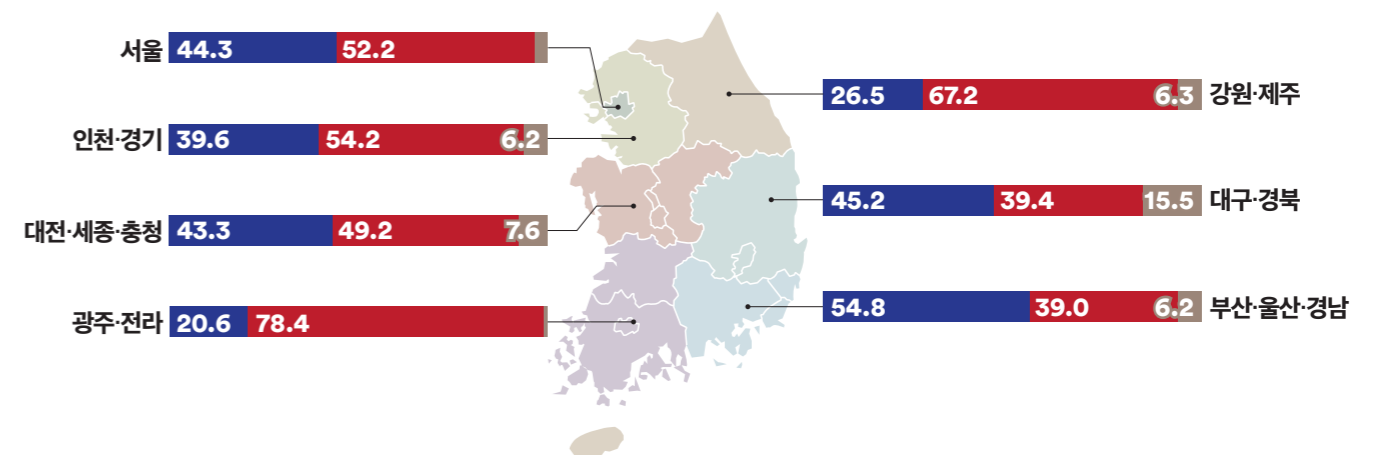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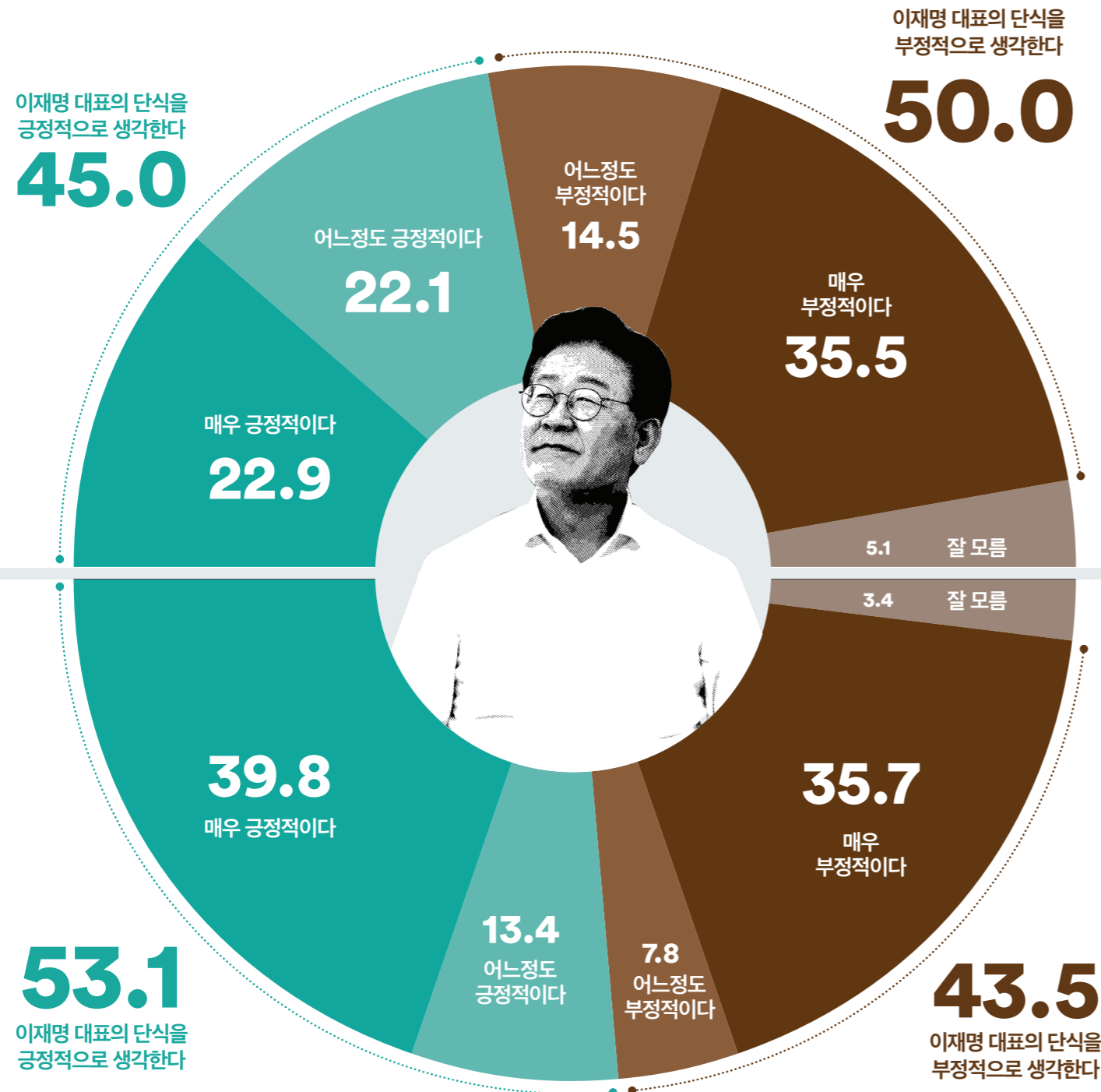
권역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Q.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사과·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국제 해양재판소 제소·국정개각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데요,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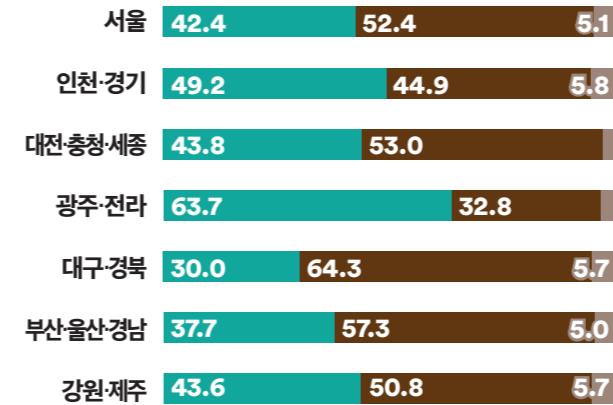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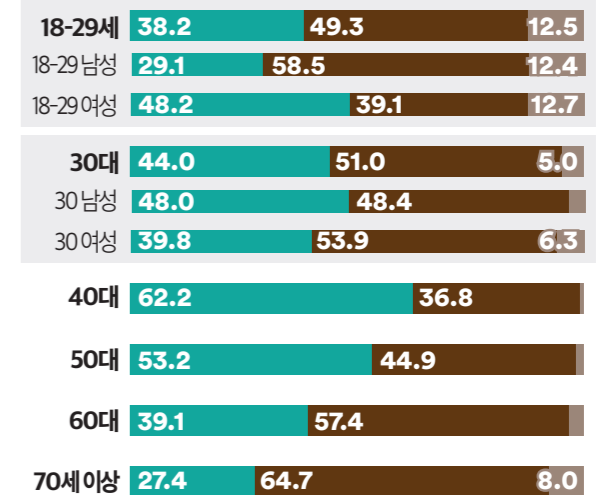
53.1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 두 조사 모두 호남권은 '긍정적'이란 응답이 우세한 반면, TK권은 '부정적'이란 응답 우세
두 조사 모두 40대는 '긍정적'이란 응답, 70세 이상은 '부정적'이란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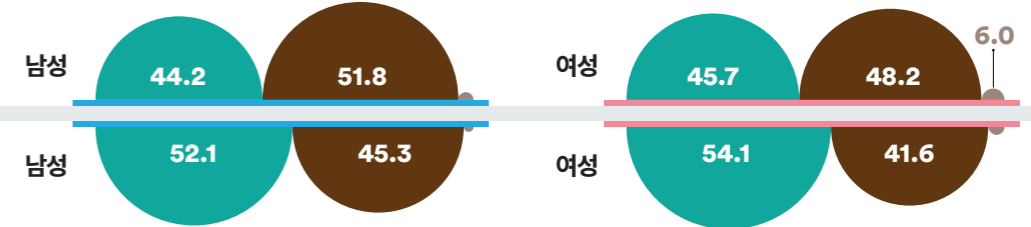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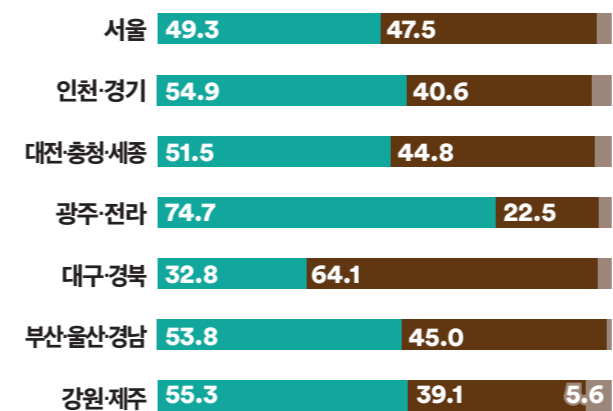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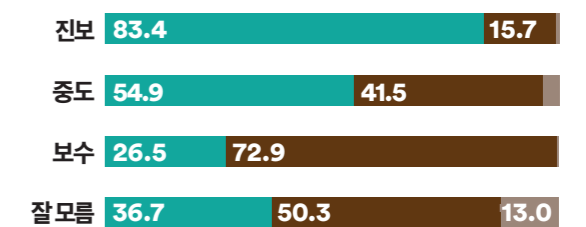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이념성향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모르겠다



대통령의 수사개입 가능성과 탄핵 발언

Q.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

대통령의 수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의 수사개입에 대한
탄핵 발언은 적절하다

43.1

대통령의 수사개입에 대한
탄핵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48.8

매우 적절하다

23.7

어느정도 적절하다

19.4

별로 적절하지 않다

22.5

전혀 적절하지 않다

26.4

잘 모름

8.1

ARS

40.5

매우 적절하다

11.6

어느정도
적절하다

10.0

별로
적절하지 않다

31.6

전혀 적절하지 않다

6.3

잘 모름

52.1

대통령의 수사개입에 대한
탄핵 발언은 적절하다

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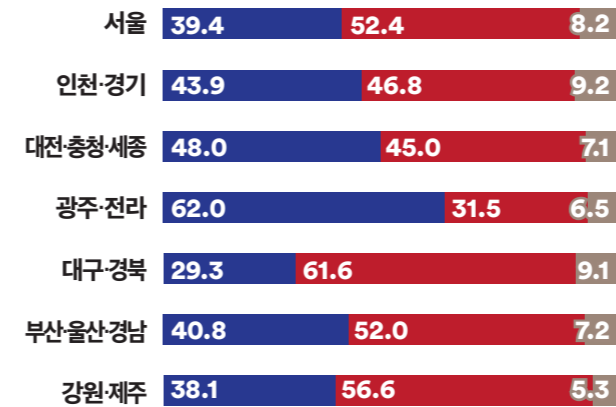
대통령의 수사개입에 대한
탄핵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

두 조사 모두 호남권은 '적절하다'(ARS 경인지역 포함), TK권은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CATI | 40대 응답층에서는 '적절하다', 20대·60대·70세 이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ARS |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적절하다'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에서만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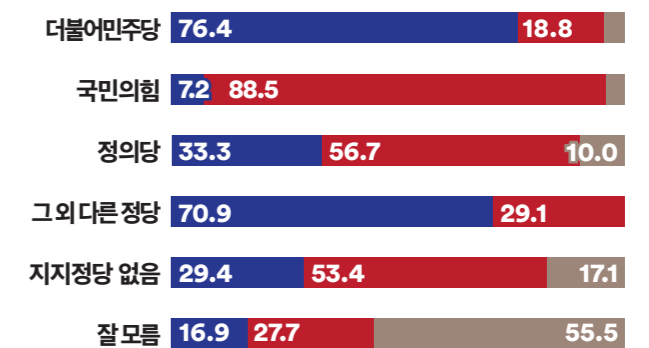
“총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결론은 직권남용으로 나올 것.”
“탄핵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정권은 1년 4개월 동안 친일 본색, 극우 뉴라이트 본색 무능과 독선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폭거만 저질렀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권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탄핵하자고 나설지 모르겠다.”

[2023.9.5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중 설훈 의원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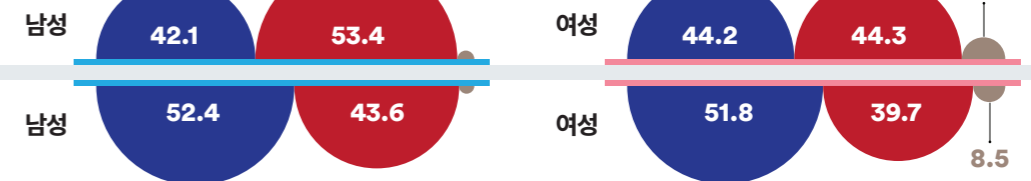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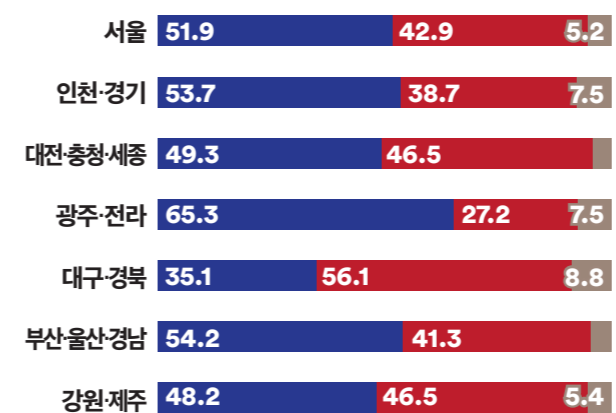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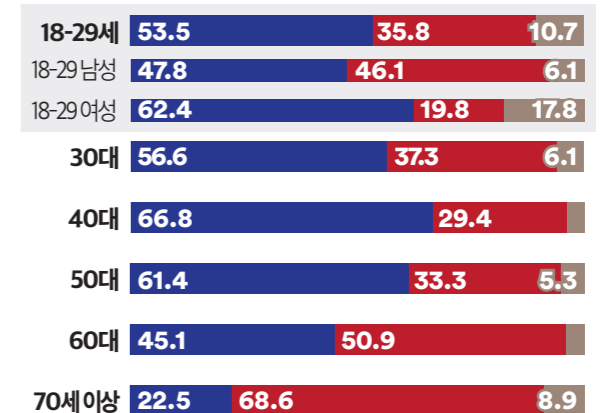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9_03

여론조사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